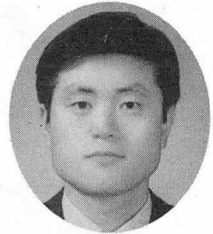


모돈의 상태에 따른 사료급여 방법



이 병 하 차장
(제일제당(주) 양돈PM)

사료를 만드는데 제일 쉽고도 어려운 것이 임신돈 사료가 아닌가 싶다. 낮은 에너지에 낮은 단백질, 사용원료도 비교적 가리는 것 없이 이것 저것 사용해도 임신기간 중에는 제한급이를 하기 때문에 기호성이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관이 무척 불량하다. 이것이 임신기에 생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료이다. 그러나 임신돈의 생리에 맞추어 사료를 이렇게 만들면 꼭 듣게 되는 얘기는 다음과 같다.

“임신돈 사료가 거칠어 못 쓰겠어요. 좀 더 에너지가 높은 사료는 없어요?”

“돼지가 말라서 안되겠어요. 저러다가 새끼가 제대로 크겠어요?”

“무슨 사료가 바람이 불면 다 날라가요. 북대기만 잔뜩 넣어

만든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며 설득하곤 한다.

“임신돈 사료는 거친 것을 먹이셔야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새끼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미가 살이 찌기 때문에 사료를 많이 먹이면 안됩니다.”

“임신기에 거친 사료를 먹이면 포유시기에 사료를 많이 먹게되어 젖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1. 임신돈 사료의 경제성

농장에 다니다 보면, “우리 임신돈 상태 좀 봐주세요. 살이 좀 마른 것 같지요?” 또는 “살이 많이 찼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그런데

살이 찼다는 얘기보다는 말랐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내가 사료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우리 사양가 여러분이 비교적 임신돈을 크게 키우지 않나 싶다. 임신돈이 말라 보이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살이 찼는 것엔 비교적 무관심한 것 같다. 하지만 임신돈은 살이 과도하게 찼는 것이 살이 마른 것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임신돈에게 사료를 많이 주게 되면 많이 준 만큼 사료값이 많이 나옴은 물론이고,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료를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

임신돈의 목적은 튼튼한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다. 임신돈

의 덩치가 크다고 새끼가 많고 커지는 것은 아니다.

임신돈에게 포유돈 사료를 먹이는 분이 많다. 포유돈 사료를 먹이는 경우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는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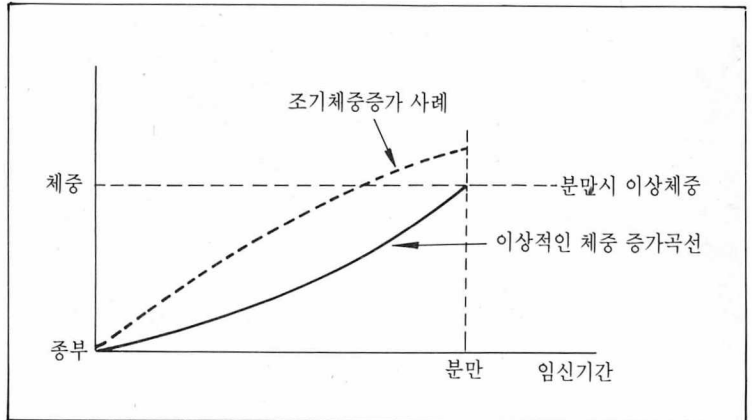
230원(포유돈사료비)-200원(임신돈 사료비)×2.3kg×100일×2.2회전=15,180원
15,180×모돈 100두=152만원

상기 계산에 의하면 모돈 100두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임신기의 프로그램을 잘못 선정함으로써 연간 152만원의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수입자유화 등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불필요한 원가 상승 요인은 지양해야 하겠다.

2. 임신기의 체중관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하여 무척 성급하다고 한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보면 한 눈에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바지의 자크를 내리고, 소변을 본 후에는 뒤돌아 나오면서 자크를 올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전부가



〈그림 1〉임신시 체중 증가곡선

66

임신돈이 말라 보이는 것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살이 찢 것엔 무관심한 것 같다. 하지만 임신돈은 살이 과도하게 찢 것이 살이 마른 것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99

우리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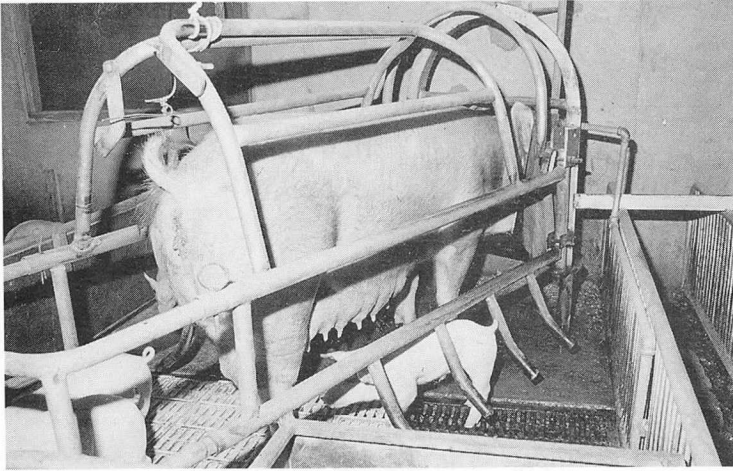
이런 급한 성질이 곳곳에 나타나지만 돼지를 키우는데도 나타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돼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태아가 자라지 않고 많은 부분이 임신말기에 크기 때문에, 모돈의 체중증가는 실선처럼 곡선을 그리면서 자라는 것이 이상적인데 많은 분들이 체중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성급해서 체중이 증가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체중이 왜 안붙지? 임신이 안된 것은 아닌가? 새끼가 부실하겠는데……” 등등.

따라서 추가로 사료를 먹이게 되고, 모돈은 분만전에 이미 체중이 넘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너무 큰 나머지 말기에 오히려 사료를 줄여 태아가 체중이 적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3. 컨디션 스코어

우리가 흔히 서양 사람과 우



리 나라 사람을 비교할 때 우리는 감(感)으로 자주 판단하고 그들은 원리(原理)를 잘 따진다고 한다.

임신돈의 체형관리도 그동안 여러가지 유인물이나 책에 체형에 의한 판단 방법(컨디션 스코어)이 소개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를 지키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한 눈대중에 더 많은 신뢰성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컨디션 스코어의 요령에 대해 설명한다.

〈컨디션 스코어〉

◦ 고능력 모돈, 특히 육질형의 돼지인 경우 체형 관리가 무척 어려우며, 체형 관리에 실패하였을 경우 비싼 모돈을 중도에 도태하게 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 비유중에 모돈은 4~6mm






의 체지방을 잃게 되는데 비해, 임신기간에는 3mm 증가에 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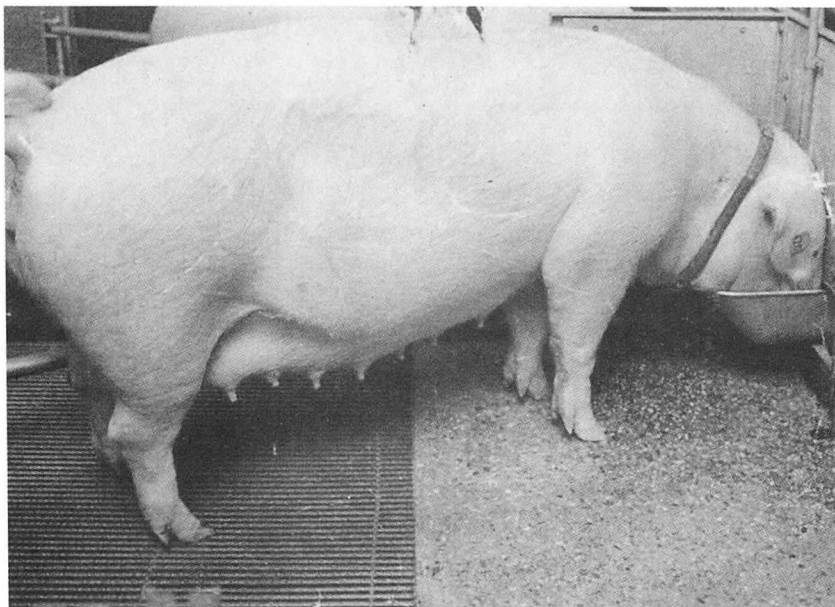
물기 때문에, 모돈의 번식성을 높게 한다는 것은 피하지방을 유지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다.

◦ 컨디션 스코어란 모돈의 체지방 침착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이며, 관골돌기 윗부분의 피하지방 두께와 모돈의 번식성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 체형 측정 요령은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여기에 대표적인 사진과 손을 이용한 측정 요령을 소개한다 <그림 2>.

〈그림 2〉모돈의 몸 상태에 의한 스코어링

		몸상태	등지방두께	체 형	관골돌기
	1	매우 야윈	15mm이하	등뼈, 늑골, 골반이 튀어나오고 만지면 튀어나온 정도를 느낌	눈으로도 위치 보임
	2	야윈	15mm	등뼈의 양측과 꼬리부분이 패어있음	쉽게 촉진된다
	3	이상적	18~20mm	이상적임	겨우 촉진된다
	4	비만	23mm	등쪽이 둥글	촉진할 수 없다
	5	과비	25mm	등쪽이 지나치게 둥글	촉진할 수 없다



4. 고섬유 임신돈 사료의 이점

임신돈이 임신돈 사료를 섭취하는 기간은 100일 정도이고, 포유돈 사료를 섭취하는 기간은 임신말기 2주간, 포유기 4주간 그리고 이유후 1주간 총 7주간 49일에 불과하다.

또한 임신기간 동안에는 제한급이를 하기 때문에, 돼지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간을 모돈은 제한급이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항상 배를 굶다가 포유기에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양이 부족하여 살이 마른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신기간에는 거친 사료를 먹여 위나 창자의 용

적을 크게 하거나 거친 사료를 급여하여 위장의 활력을 좋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친 사료의 이점은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 항상 포만감을 주어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임신기의 에너지 섭취량과 포유시기의 사료 섭취량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 임신 시기에 고섬유 사료를 먹게 되면 포유시기에는 포유 사료를 충분히 먹게 되어 충분한 유량을 생산하게 된다.

이같이 임신돈 사료의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임신돈 사료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후보돈 시기에 충분한 체지방을 축적시키지 못하고 곧바로 중부

에 들어감으로써 계속적으로 등지방두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는 후보돈 시기부터 후보돈용 사료를 급여하여 충분한 등지방을 갖추게 하고 중부에 들어감으로써, 임신시기에는 저에너지 고섬유 사료를 급여하여도 체형이 망가지지 않으면서 포유시기에는 충분한 양의 포유사료를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이유를 늦게 하여도 체중이 빠지지 않고 고도 많은 양의 젖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